

ENGLISH – KOREAN

Lesson 4 Equality for All

제4과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

Breaking the Unbreakable

깨질 수 없던 것을 깨기

Today, women are displaying their talents and abilities in almost every domain of human effort.
오늘날 여성들은 거의 모든 인간 활동 분야에서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y compete with men in once male-dominated sectors, such as politics, business, science and technology, and sports.

여성들은 한때 남성이 지배하던 정치, 비즈니스, 과학과 기술, 스포츠와 같은 분야에서 남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In the course of time women's rights have progressed a lot and now everyone accepts women in these roles as natural.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권리가 많이 발전했고, 이제는 모두가 여성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know, however, that as recently as the 1960s, women were severely restricted in their working lives due to irra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them.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이 비합리적인 차별로 인해 직업 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Even in America, where equality has long been considered one of the noblest human values, women were once not able to enjoy the same rights and privileges as men for no reason except that they were women.

오랜 세월 평등을 가장 고귀한 인간적 가치로 여겨온 미국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은 한때 남성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Women also were not eligible for admissions to Ivy League universities.

여성들은 또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Yale and Princeton did not accept women students until 1969.

예일과 프린스턴 대학교는 1969년까지 여성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n some states in America women were kept out of jury pools because they were thought to be too fragile to hear the horrible details of crimes and too sympathetic by nature to be able to remain objective about those accused of offenses.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여성이 너무 연약해서 범죄의 끔찍한 세부 사항을 들을 수 없고, 본성상 너무 동정적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객관적일 수 없다고 여겨져 배심원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Banks could refuse to issue a credit card to an unmarried woman.

은행은 미혼 여성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Even if she was married, her husband was required to sign for it.
기혼 여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에는 남편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During the 1960s revolutionary changes emerged in American society.
1960년대 동안 미국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Initially, the demands for change were triggered by sustained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African-Americans.
처음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종 차별로 인해 변화에 대한 요구가 촉발되었습니다.

Led by the Civil Rights Movement, which called for all people to receive equal treatment, people who had been treated unfairly in American society began to organize collective movements to regain their suppressed rights.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것을 요구한 시민권 운동이 이끄는 가운데, 미국 사회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온 사람들이 억압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집단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They demanded equality for all people regardless of race, sex, age, disability, national origin, religion, or other characteristics.
이들은 인종, 성별, 나이, 장애, 국적, 종교 또는 기타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을 요구했습니다.

It was this social environment of the 1960s that made American women begin to challenge both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restrictions put upon them by outdated cultural and societal stereotypes, struggling to gain their due rights as equals to men.
미국 여성들이 낡은 문화적, 사회적 고정관념이 부여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제약에 도전하도록 했으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우도록 만든 것은 바로 1960년대의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었다.

The following story shows you how a brave female athlete, Kathrine Switzer, was able to overcome one barrier in the male-dominated athletic culture.
다음 이야기는 용감한 여성 육상선수인 캐서린 스위처가 남성이 지배하는 육상경기 문화에서 어떻게 하나의 장벽을 극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Kathrine Switzer was born in Germany, the daughter of a major who was stationed there in the United States Army.
캐서린 스위처는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미국 군대에 주둔하던 소령의 딸이었습니다.

S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 Virginia and entered Syracuse University in the mid-1960s.
그녀는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0년대 중반에 시러큐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Having had a passion for running since childhood, she looked for a women's running team in the university.
어릴 때부터 달리기애 열정이 있었던 그녀는 대학에서 여자 육상팀을 찾았습니다.

To her regret, there was none, neither there nor anywhere.
유감스럽게도,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도 다른 곳에도 여자 육상팀은 없었습니다.

She trained unofficially with the men's cross-country team.

그녀는 비공식적으로 남자 크로스컨트리 팀과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There she caught the eye of 50-year-old volunteer coach, Arnie Briggs.

그곳에서 그녀는 50세의 자원봉사 코치인 아니 브릭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She wanted to run in the famous Boston Marathon, but Briggs intensely discouraged her, saying women could not run in the marathon because they were too fragile to complete the long distance race.

그녀는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어 했지만, 브릭스는 여성이 장거리 경주를 완주하기에는 너무 연약하다며 강하게 말리며 그녀의 참가를 단념시키려 했습니다.

Upon her insistence, Briggs finally agreed to let her sign up for the race.

그녀의 주장에 따라, 브릭스는 마침내 그녀가 경주에 등록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Switzer and her coach checked the rule book and entry form.

스위처와 그녀의 코치는 규칙서와 참가 양식을 확인했습니다.

At that time, it was taken for granted that only men could enter the race.

그 당시에는 남성만이 경주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To avoid the controversy that would come with her registration as a woman, she entered as "K.V. Switzer."

여성으로 등록했을 때 발생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K.V. 스위처"라는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In 1967, the Boston Marathon was on April 19. She had no idea she was going to become a part of the race's history.

1967년, 보스턴 마라톤은 4월 19일에 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경주의 역사의 일부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She was given the bib number 261.

그녀는 번호표 261번을 받았습니다.

There were 741 people listed on the program.

프로그램에는 741명의 참가자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Boston had always been a mecca for marathon runners.

보스턴은 항상 마라톤 선수들의 성지였습니다.

Now Switzer, too, was one of the pilgrims.

이제 스위처도 그 순례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At about the four-mile mark in the race, there was a man in the middle of the road shaking his finger at Switzer.

경주 약 4마일 지점에서, 도로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스위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He was Jock Semple, the race director of the marathon.

그는 마라톤의 경기 감독인 조크 샘플이었습니다.

He screamed, "Get the hell out of the race and give me your number!"

그는 "당장 경주에서 나가고 번호표를 내놔!"라고 외쳤습니다.

Then he swiped down her front, trying to tear off her bib.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의 앞쪽을 쓸어내리며 번호표를 뜯어내려 했습니다.

Switzer was so surprised and frightened that she turned to run away.

스위처는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Semple continued to swipe at the bib number on her back.

샘플은 그녀의 등 뒤에 있는 번호표를 계속해서 잡아채려 했습니다.

Having never felt such embarrassment and fear before, she wondered if she should step off the course.

그녀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창피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경주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That thought, however, was only a flicker.

그러나 그 생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She knew if she quit, nobody would ever believe that women could run a 26-plus mile race.

그녀는 자신이 포기한다면 여성들이 26마일이 넘는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Her emotion turned from fear to anger.

그녀의 감정은 두려움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I have to finish this race. I have to, even on my hands and knees. If I don't finish, people will say women can't do it."

"나는 이 경주를 완주해야만 해. 기어가서라도 완주해야만 해. 내가 완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자는 할 수 없다고 말할 거야."

At last she crossed the finish line and stepped into a different life.

마침내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Switzer finished the race in 4 hours, 20 minutes, proving with an official bib number and time that women are capable of running long distances.

스위처는 4시간 20분 만에 경주를 마치며, 공식 번호표와 기록으로 여성이 장거리 경주를 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To the male runners it was a one-off event.

남자 선수들에게는 그것이 단 한 번의 일회성 사건이었습니다.

Without a doubt, it was a lot more than that to Switzer.

의심할 여지 없이, 스위처에게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After the historic race in Boston, Switzer, along with other women runners, tried to convince the Boston Athletic Association to allow women to participate in the marathon.

역사적인 경주 이후, 스위처는 다른 여성 선수들에 덧붙여 보스턴 육상 협회가 여성들도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Finally, in 1972, women were officially allowed to run in the Boston Marathon for the first time.

마침내 1972년에 여성들은 처음으로 보스턴 마라톤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er ceaseless efforts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marathon finally led the 1984 Olympic Games to introduce the women's marathon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마라톤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은 마침내 1984년 올림픽 대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마라톤을 도입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For her part, Switzer was inducted into the National Women's Hall of Fame in 2011 for creating a social revolution by empowering women around the world through running.

스위처는 달리기를 통해 전 세계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며 사회적 혁명을 일으킨 공로로 2011년에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에 추대되었습니다.

In 2017, at the age of 70, Kathrine Switzer once again ran in the marathon, getting the media's attention globally with the same bib number 261 that was assigned to her in 1967.

2017년, 70세가 된 캐서린 스위처는 다시 한번 마라톤을 달렸고, 1967년에 그녀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261번 번호표를 달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That marked the 50th anniversary of her historic marathon in Boston.

이는 그녀가 보스턴에서 역사적인 마라톤을 한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At her advanced age, she finished in 4:44:31, a remarkable achievement.

고령의 나이에 그녀는 4시간 44분 31초 만에 완주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She had told the media that she decided to run in the Boston Marathon again to prove that even people at her age could successfully complete a marathon.

그녀는 자신의 나이에서도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스턴 마라톤에 다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Now she dreams of another revolution in athletics by securing acceptance of the notion that elderly runners should be able to compete with younger ones.

이제 그녀는 나이드은 주자들도 젊은 주자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또 다른 운동 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In honor of Switzer's accomplishment, the Boston Athletic Association announced it would retire bib number 261, and not assign it to any future runner.

스위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보스턴 육상 협회는 번호표 261번을 은퇴시키고, 앞으로는 이 번호를 다른 주자에게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ONLY ENGLISH

Lesson 4 Equality for All

Breaking the Unbreakable

Today, women are displaying their talents and abilities in almost every domain of human effort.

They compete with men in once male-dominated sectors, such as politics, business, science and technology, and sports.

In the course of time women's rights have progressed a lot and now everyone accepts women in these roles as natural.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know, however, that as recently as the 1960s, women were severely restricted in their working lives due to irra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them.

Even in America, where equality has long been considered one of the noblest human values, women were once not able to enjoy the same rights and privileges as men for no reason except that they were women.

Women also were not eligible for admissions to Ivy League universities.

Yale and Princeton did not accept women students until 1969.

In some states in America women were kept out of jury pools because they were thought to be too fragile to hear the horrible details of crimes and too sympathetic by nature to be able to remain objective about those accused of offenses.

Banks could refuse to issue a credit card to an unmarried woman.

Even if she was married, her husband was required to sign for it.

During the 1960s revolutionary changes emerged in American society.

Initially, the demands for change were triggered by sustained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African-Americans.

Led by the Civil Rights Movement, which called for all people to receive equal treatment, people who had been treated unfairly in American society began to organize collective movements to regain their suppressed rights.

They demanded equality for all people regardless of race, sex, age, disability, national origin, religion, or other characteristics.

It was this social environment of the 1960s that made American women begin to challenge both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restrictions put upon them by outdated cultural and societal stereotypes, struggling to gain their due rights as equals to men.

The following story shows you how a brave female athlete, Kathrine Switzer, was able to overcome one barrier in the male-dominated athletic culture.

Kathrine Switzer was born in Germany, the daughter of a major who was stationed there in the United States Army.

S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 Virginia and entered Syracuse University in the mid-1960s.

Having had a passion for running since childhood, she looked for a women's running team in the university.

To her regret, there was none, neither there nor anywhere.

She trained unofficially with the men's cross-country team.

There she caught the eye of 50-year-old volunteer coach, Arnie Briggs.

She wanted to run in the famous Boston Marathon, but Briggs intensely discouraged her, saying women could not run in the marathon because they were too fragile to complete the long distance race.

Upon her insistence, Briggs finally agreed to let her sign up for the race.

Switzer and her coach checked the rule book and entry form.

At that time, it was taken for granted that only men could enter the race.

To avoid the controversy that would come with her registration as a woman, she entered as "K.V. Switzer."

In 1967, the Boston Marathon was on April 19. She had no idea she was going to become a part of the race's history.

She was given the bib number 261.

There were 741 people listed on the program.

Boston had always been a mecca for marathon runners.

Now Switzer, too, was one of the pilgrims.

At about the four-mile mark in the race, there was a man in the middle of the road shaking his finger at Switzer.

He was Jock Semple, the race director of the marathon.

He screamed, "Get the hell out of the race and give me your number!"

Then he swiped down her front, trying to tear off her bib.

Switzer was so surprised and frightened that she turned to run away.

Semple continued to swipe at the bib number on her back.

Having never felt such embarrassment and fear before, she wondered if she should step off the course.

That thought, however, was only a flicker.

She knew if she quit, nobody would ever believe that women could run a 26-plus mile race.

Her emotion turned from fear to anger.

"I have to finish this race. I have to, even on my hands and knees. If I don't finish, people will say women can't do it."

At last she crossed the finish line and stepped into a different life.

Switzer finished the race in 4 hours, 20 minutes, proving with an official bib number and time that women are capable of running long distances.

To the male runners it was a one-off event.

Without a doubt, it was a lot more than that to Switzer.

After the historic race in Boston, Switzer, along with other women runners, tried to convince the Boston Athletic Association to allow women to participate in the marathon.

Finally, in 1972, women were officially allowed to run in the Boston Marathon for the first time.

Her ceaseless efforts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marathon finally led the 1984 Olympic Games to introduce the women's marathon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For her part, Switzer was inducted into the National Women's Hall of Fame in 2011 for creating a social revolution by empowering women around the world through running.

In 2017, at the age of 70, Kathrine Switzer once again ran in the marathon, getting the media's attention globally with the same bib number 261 that was assigned to her in 1967.

That marked the 50th anniversary of her historic marathon in Boston.

At her advanced age, she finished in 4:44:31, a remarkable achievement.

She had told the media that she decided to run in the Boston Marathon again to prove that even people at her age could successfully complete a marathon.

Now she dreams of another revolution in athletics by securing acceptance of the notion that elderly runners should be able to compete with younger ones.

In honor of Switzer's accomplishment, the Boston Athletic Association announced it would retire bib number 261, and not assign it to any future runner.

ONLY KOREAN

제4과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

깨질 수 없던 것을 깨기

오늘날 여성들은 거의 모든 인간 활동 분야에서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한때 남성이 지배하던 정치, 비즈니스, 과학과 기술, 스포츠와 같은 분야에서 남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권리가 많이 발전했고, 이제는 모두가 여성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이 비합리적인 차별로 인해 직업 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오랜 세월 평등을 가장 고귀한 인간적 가치로 여겨온 미국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은 한때 남성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또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일과 프린스턴 대학교는 1969년까지 여성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여성이 너무 연약해서 범죄의 끔찍한 세부 사항을 들을 수 없고, 본성상 너무 동정적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객관적일 수 없다고 여겨져 배심원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은행은 미혼 여성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기혼 여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에는 남편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1960년대 동안 미국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종 차별로 인해 변화에 대한 요구가 촉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것을 요구한 시민권 운동이 이끄는 가운데, 미국 사회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온 사람들이 억압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집단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인종, 성별, 나이, 장애, 국적, 종교 또는 기타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여성들이 낡은 문화적, 사회적 고정관념이 부여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제약에 도전하도록 했으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우도록 만든 것은 바로 1960년대의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용감한 여성 육상선수인 캐서린 스위처가 남성이 지배하는 육상경기 문화에서 어떻게 하나의 장벽을 극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캐서린 스위처는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미국 군대에 주둔하던 소령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0년대 중반에 시러큐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리기에 열정이 있었던 그녀는 대학에서 여자 육상팀을 찾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도 다른 곳에도 여자 육상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공식적으로 남자 크로스컨트리 팀과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50세의 자원봉사 코치인 아니 브릭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어 했지만, 브릭스는 여성이 장거리 경주를 완주하기에는 너무 연약하다며 강하게 말리며 그녀의 참가를 단념시키려 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라, 브릭스는 마침내 그녀가 경주에 등록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스위처와 그녀의 코치는 규칙서와 참가 양식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만이 경주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여성으로 등록했을 때 발생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K.V. 스위처"라는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1967년, 보스턴 마라톤은 4월 19일에 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경주의 역사의 일부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번호표 261번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에는 741명의 참가자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스턴은 항상 마라톤 선수들의 성지였습니다.

이제 스위처도 그 순례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경주 약 4마일 지점에서, 도로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스위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라톤의 경기 감독인 조크 샘플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경주에서 나가고 번호표를 내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의 앞쪽을 쓸어내리며 번호표를 뜯어내려 했습니다.

스위처는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샘플은 그녀의 등 뒤에 있는 번호표를 계속해서 잡아채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창피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경주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포기한다면 여성들이 26마일이 넘는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두려움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경주를 완주해야만 해. 기어가서라도 완주해야만 해. 내가 완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자는 할 수 없다고 말할 거야.”

마침내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스위처는 4시간 20분 만에 경주를 마치며, 공식 번호표와 기록으로 여성이 장거리 경주를 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남자 선수들에게는 그것이 단 한 번의 일회성 사건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스위처에게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역사적인 경주 이후, 스위처는 다른 여성 선수들에 덧붙여 보스턴 육상 협회가 여성들도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1972년에 여성들은 처음으로 보스턴 마라톤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은 마침내 1984년 올림픽 대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마라톤을 도입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스위처는 달리기를 통해 전 세계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며 사회적 혁명을 일으킨 공로로 2011년에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에 추대되었습니다.

2017년, 70세가 된 캐서린 스위처는 다시 한번 마라톤을 달렸고, 1967년에 그녀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261번 번호표를 달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보스턴에서 역사적인 마라톤을 한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그녀는 4시간 44분 31초 만에 완주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에서도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스턴 마라톤에 다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나이든 주자들도 젊은 주자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또 다른 운동 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스위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보스턴 육상 협회는 번호표 261번을 은퇴시키고, 앞으로는 이 번호를 다른 주자에게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